

白頭山과 延邊 그리고 北京大學

글·사진 南 周 鎬

(本會會員·稅務士)

天津도착

우리協會 회원이 主軸이 된 「北京大學 研修 및 延邊과 白頭山의 自然生態 探訪團」 일행 13명이 중국 天津에 도착한 것은 지난 8월24일이였다.

날씨와 기온은 우리와 비슷한 전형적인 늦여름의 그것이었지만 空港 종사원들의 無表情한 모습, 회색빛 공항건물의 무거움, 악을 쓰듯 질러대는 중국인들의 말소리들이 우리 一行을 조금은 답답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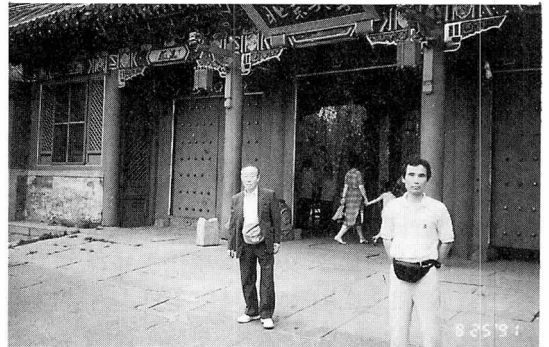
天津에서 北京을 향하는 4차선 고속도로변은 산등성이 하나 볼 수 없다. 길고 끝없는 들판의 전형적인 농촌풍경에 옥수수, 수수, 깨, 해바라기 따위의 밭농사가 대부분이고 논 농사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도시자연공원, 北京大學

人口 9百萬의 이 나라 首都 北京에 도착하니 깨끗하고 넓은 거리에 덮힌 푸른 숲은 中國 특유의 자연적 행렬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本會 朴七星 七甲산지부장과 짝이 되어 첫 일정에 들어간 우리는 북경대학 張佑璽교수 등으로부터 중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360여년의 역사를 가진 北京大學(前身:京師大學



▲ 3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北京大學의 正門

堂)은 학생 2만여명, 교수 7천여명으로 울창한 樹林과 넓은 호수를 안고 있는 太古의 靜寂을 품은 都市自然公園이었다.

많은 小數民族이 함께 사는 이 나라는 역사의 변천과 문화의 生成에서 우리나라와 너무도 많은 「歷史」를 간직하고 있음을 이번 강의는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學制는 6.3.3.4制로 우리와 같으나, 文盲率은 25%정도라고 하니, 이 나라의 現住所를 알 것도 같다.

3일간의 北京일정을 마치고 延邊을 向해 瀋陽으로 떠나기전 大學으로부터 융숭한 저녁식사와 함께 「北京大學歷史系主辦의 中國歷史與文化研修班」修了證書를 받았다. 北京大學측에서 記念으로 준 것으로 그 厚意에 감사한다.

우리민족의 故鄉 延邊

北京을 출발, 瀋陽을 거쳐 延吉에 도착한 우리는 이곳이 우리나라의 시골風景과 너무나 흡사함에 우선 반가웠다. 거리의 간판은 우리 글과 한문으로 나란히 쓰여 있는가 하면, 짐을 나르는 달구지, 강변언덕의 牛市場, 치마저고리의 여인네 옷차림, 모두가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였다.

延吉市 人口30萬中 18萬이 僑胞

중국55개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잘산다고

이곳은 吉林省 延邊自治州 區域內的 중심지인 延吉市로서 5個市(延吉市, 圖們市, 龍井市, 瑯春市, 敦和市), 3個縣(安圖縣, 和龍縣, 汪青縣) 가운데 제일 크고 발전이 가장 앞선 都市라고 한다. 人口 30萬 명중 우리僑胞가 18萬명으로 중국의 55개 小數民族중 가장 많이 살고 또 잘 사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어김없이 우리교포이며 제일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 값이 2천元(우리 돈 약28만원)으로 이것도 高所得源의 한몫을 하고 있다 한다.

조금은 황량하게 보인 天津쪽 평야와는 달리 이곳의 들판은 肥沃해 보였고 탐스런 벼포기는 이삭을 들어내고 있었다. 이곳 延邊교포들의 벼농사 기술이 뛰어나 중국 농촌 각지에서 이 기술을 배우러 이곳에 모여 든다고 한다.

延吉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朴景利氏의 소설 「土地」의 무대로 유명한 龍井市는 인구 7만5천명에 교포가 80%로 그야말로 중국속의 한국이었다.

尹東柱詩人の 母校 大成(龍井)中學

해란강과 一松亭이 바로 龍井을 끼고 있었으며 광활한 사과, 배농장이 그림처럼 펼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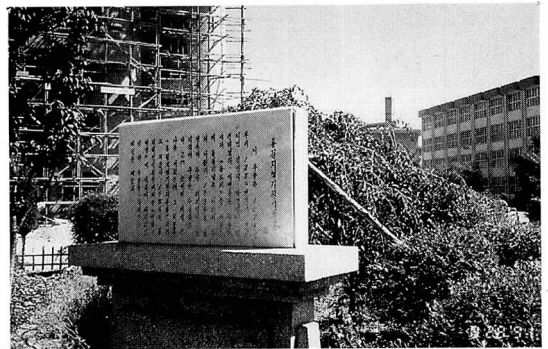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쓴 抗日詩人 尹東柱선생의 墓와 옛날 尹詩人을 포함한 많은 先烈士들이 다니던 大成中學(現 龍井中學) 등이 이곳에 있었다.



▲尹東柱시인 등 많은 人材를 낳은 大成中學(現 龍井中學) 正門

1879年 龍井을 開發한 先驅者의 송덕비

1879년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해 오늘의 「龍井」을 낳게 한 박인연, 장인석先生的 頌德碑와 「용두레 우물」이 우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龍井우물을 開拓한 박인연, 장인석先生的 송덕비

우리는 8월28일 낮 延吉을 떠나 350km가 떨어진 白頭山을 향했다. 도중에 저 有名한 金佐鎭장군의 靑山里싸움터를 지날 수 있었지만 그 흔적은 볼 수 없고 그 자리엔 울창한 숲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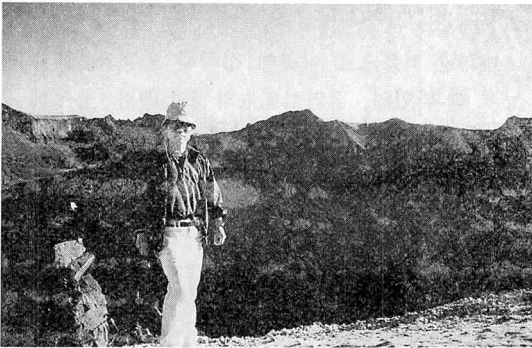
國家主要業種이 林業이라 山林保護철저

白頭山이 가까워질수록 자작나무群이 끝없이 펼쳐

이곳 延邊은 80%가 林地로 국가주요 업종이 林業이라고 하며, 그것을 말해 주듯 곳곳에 「護林防火」라는 山林보호 글씨가 나붙어 있었다.

白頭山이 가까워 올수록 原始林의 큰 몸체가 하늘을 가리고 흰 자작나무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伐木된 아름드리 나무가 여기저기 뒹굴고 그것을 실은 트럭이 가쁜 숨을 토하며 달리는 풍경은 異國 밀림지대의 복판에 버려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標高가 높아지면서 樹種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면서 현지 안내원이 설명하는 白頭山 生態에 대하여 들은 얘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 白頭山 天池앞에 선 筆者



▲ 朴七星 칠감산지부장이 협회기를 흔들며 天池를 바라본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

白頭山의 生態 概況

▲ 해발 1,700m以下는 中溫帶로 나무는 主로 紅松, 白松등 활엽 및 침엽수林이고, 곰·산돼지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발 1,700m에서 2,100m까지는 中溫帶와 寒帶사이로 紅松과 소나무가 자라며, 동물은 다람쥐만이 살고 있다. ▲2,500m까지는 寒帶로 「악화」라 불리는 식물만이 살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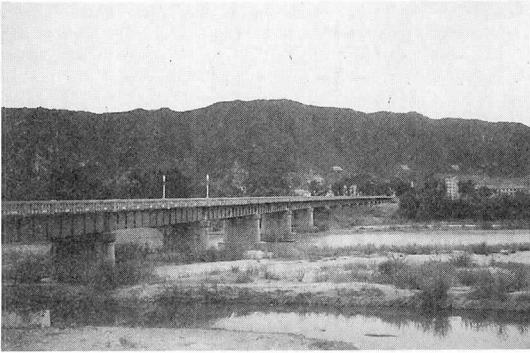
▲ 白頭山 자연생태 탐방단원들과의 기념촬영. 뒷줄 左에서 세번째가 朴七星단장 會旗의 右측에 앉은 이가 筆者(白頭山 頂上에서)

해발 1,500m이상의 白頭山 中林帶부터는 IUCN이 1982年度에 국제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全世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우리는 天池專用的 4人승 纜차로 바뀌타고,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 安圖縣 二道白河鎮에 소재한 2,744m의 白頭山 天池에 도착하니, 天池의 검푸른 水面은 서쪽 白雲峰에 걸려있는 태양의 마지막 햇살을 받아 옥구슬처럼 빛나고 있었다.

恨 많은 豆滿江

이튿날 우리는 다시 延吉로 돌아와 중국의 最東南쪽인 圖們市를 찾았다. 북한의 南陽지역과 중국을 連結하고 있는 두만강다리—.



▲北韓 南陽지역의 山川(正面)을 바라보며-건너지 못하는 豆滿江의 圖們橋



▲中國 靑旅延邊公司(여행사)소속 교포 朴珍哲씨(右)에게 국립공원지 등을 전달하는 本會 朴七星 七甲山지부장.

그 다리 중간에 파란 색깔을 칠해 국경을 표시해 놓고 있었다. 汝矣島의 셋강처럼 가냘픈 강물은 듬성듬성 나타난 모래톱사이로 희끄무레한 빛깔로 메마르게 흐르고 있었으며 약 500m쯤 되는 다리 저쪽에는 북한의山野와 그 속에 시멘트 건조물이 희끗 희끗 보이고 있었다.

故鄉을北에둔분들은 눈시울이붉어

우리 일행중 이북이 고향인 朴七星씨를 비롯 金珍變, 元承喜, 金熙龍, 金應祚, 臨瑩淳, 許賢康諸氏에게는 이곳을 보는 感懷가 남 달랐음인지 눈시울이 붉어 보였다.

延邊일정을 마치고던날, 이번 여행의 단장을 맡은 본회 朴七星 七甲山지부장과 총무를 맡은 필자는 떠나올때 協會本部서 가지고 온 본회 기관지인 「季刊 國立公園」誌와 管理公園의 畫報등 200여권을 이곳 연변교포를 대표해서 중국靑旅延邊公司 接對部(吉林省 延吉市 友誼路 16號) 朴珍哲씨에게 전달했다.

그것들이 우리 교포에게 많이 읽히고 보여져 조국의 自然公園보호운동을 이해하게 되고 아름답고 싱싱한 山河를 그리는 媒體가 되어줄 것이라는 朴씨의 應待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瀋陽을 거쳐 8월31일 귀국길에 올랐다.

국립공원이라고 따로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 전부가 국립공원인 셈인 이곳의 자연환경은 비교적 쾌적했으며 각종 公害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았다.

우리 남한의 96배가 된다는 거대한 大陸, 거기에 12억 人口를 안고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 나라 중국은 먼 나라가 아닌 바로 우리의 눈 앞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切感한 것은 비단 筆者만의 생각은 아닌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소개한 분외에도 張好鎮, 李基大, 張貞民, 慶泰玉, 朴星雄諸氏도 이번 여행에 同行한 自然사랑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한 분들임을 소개하는 同時에 時間과 紙面사정으로 萬里長城·明13陵 등의 文化古蹟 답사관계는 省略했음을 附記한다.

自然公園
愛護標語

山은 우리에게 맑은 空氣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資源이다.